

세월호 참사 4개월...저 깊은 바닷속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10명



“죽어도 내 새끼 찾아놓고 죽어야지”

원망의 바다, 기약없는 세월



세월호 사고 4개월을 맞은 14일 진도 팽목항 등대에 설치된 노란 바람개비가 실종자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듯 바람에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진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진도=김형호기자·박기용수습기자

시커먼 하늘에서 떨어질 뻔할 위급이 종일 팽목항 앞바다를 두드려댔다. 엄마 아빠들은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맹골수도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수색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떠난 뒤였다.

세월호 참사 발생 4개월째를 이틀 앞둔 14일 오전 찾아가진 진도 팽목항은 고요했다. 태풍이 불 때마다 천막에 머물고 있던 자원봉사자는 조금씩 돌아갔고 지금은 배식과 물리치료, 빨래, 의료지원 등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와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 종교인 등 필수 인력만 남아있어 한적하기까지 했다. 또 실종자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지, 팽목항 방파제 바로 옆에서는 벌써 낚시꾼들이 낚시를 즐기는 모습도 보였다.

참사 며칠 뒤부터 팽목항을 수놓았던 노란 리본과 메모지들은 뜰겨나가거나 대부분 색깔이 바래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다. 실종자 가족들이 바닷속에 잠들어있는 아들 딸을 그리워하며 방파제 구석구석에 고이 모셔둔 과자류, 운동화, 옷가지들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관심에서 밀려나 때로 얼룩져 있

“애들 찾을 때까지 힘내자” 실종자 가족들 서로 격려 방파제 옆엔 낚시꾼 하나들 세월호 벌써 잊혀져 가나

었다. 실종자 엄마 아빠들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대변하는 듯했다.

수색현장에 나가지 않은 엄마 아빠들은 제때에 끼니를 챙겨 먹으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하루에 몇 차례씩 자원봉사자들이 가져다주는 과일도 엄마 아빠들은 최대한 잘 챙겨 먹고 있었다. 잃어버린 자식을 언제 찾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엄마 아빠들은 직감으로 자신의 체력을 유지하고 정신을 놓지 않아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식을 찾아 무사히 장례도 치르기 전에 부모가 먼저 정신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 부부는 매일 서로에게 얘기하고 있어요”라며 “죽어도 내 새끼를 찾아놓고 죽어야지, 내 배 아파 낚아서 기른 자식인데 안 그래요?”라고 당차게 말하는 엄마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고였다.

수하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등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진도 앞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지 121일째를 맞는 이날 현재 수습된 희생자는 모두 294명, 침몰 되기 전 배를 탈출했던 172명을 뺀 나머지 10명은 여전히 실종상태다.

주은화·허다운·박영민·남현철·황지현 등 남녀 학생 5명과 양승진(57)·고창석(40)씨 등 교사 2명과 권재근(52)·혁규(6) 부자 그리고 일반 탑승객 이영숙(여·51)씨 등 10명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범정부대책본부는 4차 수색이 종료되는 20일부터 민간 잠수사 수를 35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차 수색 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5팀으로 운용되던 잠수인력에 민간 잠수사 1개팀을 늘려 총 6개 팀(기간 4개·해군 2개팀)으로 잠수인력을 보강해 수색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한편, 세월호 사고 범정부대책본부는 이날 합정 67척과 항공기 2대, 민·관·군 합동구조팀 127명을 투입해 3층 선수 우현, 선미 중앙, 4층 선수·선미 다인실에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고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이렇다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세월호 현장 120일째 지키는 배의철 변호사

“알맹이 없는 특별법은 국민 기만 수사·기소권 부여 진실 규명해야”

“선체 모두 수색한게 아닌데 인양 논의는 말도 안된다”

세월호 참사 발생 4개월째를 이틀 앞둔 14일 잇혀져 가는 참사의 현장, 진도 팽목항에서 배의철(37·사진)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참사 발생 이틀째 되던 지난 4월 18일 진도로 내려와 지금까지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다. 서울에서 산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생전 처음 방문한 진도에서 ‘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보여주기 식으로 적당히 여야가 특별법을 제정해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 수백 명이 희생된 전례없는 사고를 겪은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이런 참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전례없는 특별법을 통해 국민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는 왜 알맹이(수사·기소권)도 없는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란을 지켜보며 여야 모두 진실 규명에는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다고 단정했다. 무기(수사·기소권)를 주지않고 싸우라는 것은 애초 불가능한 게임이라는 판단에서다. 배 변호사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아직 선체를 모두 수색한 게 아닌 상황에서,



수색이 되지 않았거나 미진했던 공간에서 실종자들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세월호 4층 S4 객실, 4층 중앙 화장실, 4층 로비, 4층 B22 복도, 4층 선미 좌현 다인실 SP1, 3층 계단 등에서 마지막으로 일부 실종자를 목격했다는 생존자의 증언이 있다”면서 “이 구역은 아직 전혀 수색이 되지 않았거나 부유물 및 넓은 공간으로 인해 수색이 미진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라고 인양 논란을 일축했다.

인터뷰 내내 답답함을 토로했던 그는 인터뷰를 마친 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할 실종자들의 편지를 이어 쓰기 시작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 /사진=최현배기자 choi@

이낙연 지사 선거캠프

관계자 4명 추가 기소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이낙연 전남지사의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추가로 기소됐다. 전남지사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일부 관계자들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경선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내 경선 당시 분부장, 대변인, 특보 2명 등 이 지사의 선거캠프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비서관을 맡았던 이모(48)씨는 이미 당비 대납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가량 관리 당원 3000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모 분부장과 배모 대변인은 지난 4월 광주·전남 대학교수 259명에게 지지 선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분부장은 당시 비서관과 함께 ‘서포터스’ 2만5000명을 모집한 혐의로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모 특보 등 2명에 대해 공문조사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지지 요청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노회용 동구청장 불구속 기소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14일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 연수 과정에서 경비 일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 한 자문단체의 대만 연수 과정에서 위임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청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청해진해운 대표, ‘최고 경영자 유병언’ 인정

김한식 대표 재판서 시사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가 청해진 해운 최고 경영자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김 대표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검증, 조사하는 과정에서다.

김 대표는 14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과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운은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2차 공판 과정에서 사직서를 작성해 유병언 회장에게 내렸다고 진술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중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사직서와 관련,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 하니 재가해 달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누구에 제출하려고 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유

병언 회장에게 내야 하는데 (내지 않고)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김 대표의 이날 법정 진술은 청해진해운의 최고 경영자가 유병언임을 알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검찰측은 임직원들의 사직서 제출 유죄 입증과 관련, “세월호 도입과 운항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였는데 적자가 나고 다시 매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전 간부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액션’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 단독 운항 시 손익 분기점, 제주항로 운영 선박 구조조정안 등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향후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세월호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과적·부실 고박 등 무리한 운항으로 사고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찰차 언어타령 날치기 거짓 신고

○~사백에 순찰차를 얻어 타고 광주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가기 위해 경찰에 날치기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14일 영암경찰청에 따르면 이모(28)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30분경 영암군 영암읍 역리 농협 삼거리에서 현금 20만 원이 든 손가방을 날치기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것.

○~이씨는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려는 경찰관에게 “광주에 데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에 가려는데 택시비가 없었다”고 진술.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오피스텔 "매매"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20층, 최상층, 전망좋은
- ★ 사무실 적합, 전세 올수리 시세/분양가-4억
- 매매-2억7천5백만원

- 53평-13층, 코너, 전망좋은
- 전세 올수리, 주거겸/사무실 겸용
- ★ 시세/분양가-2억
- 매매-1억5천5백만원

- 29평-11층, 2세대, 사무실 적합
- 하천방향, 즉시입주 가능
- 매매-6500만원
- 일시불 파격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010-3605-5000

콘도/별장/펜션
문의, 010-3605-5000

-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 ★ 아파트 개념
- 전기, 수도, 가스 개별
-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 TV등 빌트인 시설 포함

- ★ 산속의 궁전
- 화개장터, 생계사, 섬진강 근접거리

- ★ 2층, 28평, 56평 각 1세대
- ★ 총 55세대 중 잔여세대
- ★ 28평 - 9000만원
- 56평 - 2억원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타 부동산과 교환가능

대자공인중개사
H,010-8572-8985 T,262-8985

- **진주빌라 89㎡**
- 북구 오치동 1층, 구조좋은
- 매매가 5950만원

- **임야 36026㎡**
-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 2차선 포장도로로 접
- 전면 85m 접
- 매매가 2억1800만원

수익성 있는 부동산 매입합니다.
★ 급매물 접수합니다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